

◇급성 Type I 대동맥 박리증에서 수술후 가강의 변화

이교준*, 장병철*, 강면식*, 이도연**

*연세대학교 의과대학, 심장혈관센터 심장혈관외과 **연세대학교 의과대학, 진단방사선과

배경 및 목적 : 급성 대동맥박리증은 응급 인조혈관 대치술을 시행하나, Type I 경우에는 수술후 가강[false lumen]이 잔존하게 된다. 그러나, 가강이 완전 소실되기도 하지만, 재진입[re-entry]이 있는 경우엔 혈류가 잔존하여 대동맥류로 진행할 수 있다. 따라서 수술전후의 가강의 변화를 조사하고자 본 연구를 계획하게 되었다.

방법 : 1992년1월부터 1997년12월까지 연세대학교 심장혈관센터에서 급성 Type I 대동맥 박리증의 인조혈관 대치술은 42례이며, 수술사망 6례[14.3%]를 제외한 36례중 수술전후 흉복부 전산화단층촬영[CT]으로 비교가 가능한 18례를 대상으로 하였다. 남자가 10례, 여자는 8례로 나이는 50.9 ± 14.7 세였다. 수술은 Bentall씨 술식 7례, 상행대동맥 대치 7례 및 대동맥궁을 함께 대치한 4례가 있었다. 수술전후 흉복부 전산화단층촬영[CT] 결과에서 우폐동맥의 중심부위[a], 좌측 횡격막부위[b] 및 좌측 신동맥직하부[c]등의 3부위 대동맥에서 가강 및 진강의 조영제 변화를 조사하였고, 가강이 발생한 방향의 대동맥의 직경[D]과 가강이 차지하는 부분[F]을 측정하여, 그 비율[F/D]의 변화를 비교하였다. 평균 추적 조사 기간은 14.7 ± 13.6 개월이었다.

결과 : 수술전 가강의 일부에 혈종이 보였던4례에서는 2례에서 수술후 3 level 모두에서 가강이 소실되었고, 2례는 수술후에 변화가 없었다. 14례는 수술전에 진강 및 가강에 혈종이 전혀 보이지 않던 환자들로 이 중 1례는 수술후 가강이 소실되었다. 그 외13례는, 3례에서 수술후에도 가강이 소실되지 않고 혈종도 보이지 않았고, 10례는 수술후 a 부위의 가강은 혈종으로 대체되고, c 부위는 혈류가 잔존하였다[b 부위는 다양하였음]. 수술전후 가강 크기의 변화는 가강이 혈종으로 대체된 10례의 a 부위 F/D 비율이 수술전 $77.5 \pm 12.5\%$ 에서 수술후 $64.9 \pm 9.0\%$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강 직경이 감소하였으나 혈류가 잔존한 13례의 c 부위 F/D 비율은 수술전 $65.3 \pm 16.5\%$ 에서 수술후 $65.7 \pm 11.5\%$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가강 직경의 변화가 없었다.

결론 : 급성 Type I 대동맥 박리증의 수술후 잔존하는 가강은 흉부 대동맥 부위에서는 혈종으로 대체되면서 그 크기가 감소하지만, 혈류가 잔존하는 경우엔 가강의 확장에 따른 흉복부 대동맥 파열의 위험이 있으므로, 철저한 수술후 추적 검사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.

책임저자:이교준(연세대학교 의과대학, 심장혈관센터 심장혈관외과)
 발표자:이교준*(연세대학교 의과대학, 심장혈관센터 심장혈관외과)